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로 알려주세요.

종교

“인내와 용서하는 화해의 덕성을 길러야” 조계종 종정 계묘년 신년법어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인내와 용서하는 화해의 덕성을 길러 인간의 품을 소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성파 대종사는 22일 발표한 계묘(癸卯)년 신법어에서 “다투며 갈라지고 증오와 분노로 마음 밭이 거칠어졌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성파 대종사는 “만법을 빚어내는 마음을 통해 푸른 원(願)을 세운 이는 구하고 찾는 것이 이루 어지는 새로운 우주를 세울 것이요. 일체를 담아 내는 포용의 큰 그릇을 이룬 이는 만덕의 기틀을 얻어 이웃을 넉넉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눈앞에 삶의 매듭을 풀어내는 깨달음이 있고 눈빛이 닿는 곳에 얄매임에서 벗어나는 출신활로 (出身活路)가 있다.”며 “일체제불이 이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밖에서 찾지 말고 면전에 출입하고 있는 무위진인(無位真人)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파 대종사는 또 “햇살도 가슴에 담아두면 원광의 빛이 되는 새해 아침에 묵은 것을 버리고 빛이 소생하는 마음 밭을 경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은 회장 연임 OC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OC)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의회)의 심상은 회장(갈보리선교교회 담임)이 차기 회장으로 연임됐다.

교회협의회는 지난 15일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심 회장을 비롯해 모든 임원진의 연임을 결의했다.

심 회장은 이날 연임이 결정된 후 “아직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OC에 있는 400여 개의 한인교회들이 더욱 더 연합하고 지역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회장은 또 “OC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교회협의회 회원이며 동역자들이라 사상을 인식시키기 위해 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믿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복이요, 외롭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神人)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모님은 박복하기 이를테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임태했다고 하는 것을 믿었겠습니까?

그 당시 유다땅에서는 처녀가 임태했다고 하는 것은 돌에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간음죄였지요. 성모님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켰어요. 요셉 성인은 성모님을 동정으로 지켜주셨고, 아들 예수를 지켜주셨어요.

마리아는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예수도 삼십에 집을 떠나 방랑선생 노릇을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은 읍법학자들이 ‘저 놈 죽여야 된다!’고 하니 늘 노심초사하는 성모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또 나중에는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봐야 하는 그 여인을 어찌 복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성모님의 일곱 가지 고통, 성모칠고가 됩니까?

첫째. 시메온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신 것

둘째. 헤로데가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난가신 것

셋째.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 찾아 헤매신 것

넷째. 십자가에 자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신 것

다섯째.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신



음하고 있는 아들을 지켜봐야 했던 엄마의 고통

여섯째. 죽은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비통에 젖으신 것

일곱째. 아들의 장례를 치른 것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둘는다고 그랬지요?

이렇게 고통덩어리로 살았던 성모님께 무슨 복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성모님, 이 모자가 하나같이 이렇게 박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우는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신자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차원의 그런 복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면 2019년도 복된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조그마한 인간적인 장애와 조건에도 자주 넘어지고 쉽게 포기합니다. 작은 시련이 와도 하느님 멀리하고 무슨 광계만 생기면 신앙을 가차없이 내던지기 일쑤입니다.

주일날 똑같은 강론을 들어도 나가서 살아가는 열매가 다릅니다. 똑같은 성서를 보아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체험을 하여도 어떤 이들은 하느님과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느님을 멀리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삼왕처럼 만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고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한 적은 있는가!

두 번째. 세 왕은 온갖 고생 끝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올 일 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남에게 떠맡기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올 때마다 많은 걱정을 하는데 걱정은 백날 해봐야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걱정을 하면 어둠이 들어오지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즉 영세를 하고 미사 때마다 말씀과 성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죄악의 길이 아니라 선의 길로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별이요, 나침반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일 년 동안 십자가의 어려움, 때로는 병의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들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별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결심합시다.

-김웅열 신부-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쉴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쉴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